



## 컨트롤유니온코리아 홍리 지사장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 인상적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 중시

컨트롤유니온코리아의 한국지사장으로 부임한 홍리 지사장은 처음 만나는 고객들에게 한국인 또는 한국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한다. 중국계이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 홍 지사장의 외모는 부드럽고 친근한 인상을 갖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5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뛰어난 외국어실력을 갖고 있는 그는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처음이지만, 빠르게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적잖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다. 홍리 지사장에게 향후 컨트롤유니온코리아의 마케팅전략과 환경인증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았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수년전에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로 한국에 머물렀는데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기는 했으나 매우 역동적이고 빠르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인상

적이었습니다. 특히, “빨리 빨리”로 대표되는 한국의 빠른 속도감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홍콩도 대도시이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은 이들 도시와는 다른 분위기의 속도감과 역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올해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하반기 CUC의 마케팅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수치로 몇 개의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든가,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이는 컨트롤유니온코리아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인증 사업의 성격상 일반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유니온코리아는 고객사들이 지속가능한 친환경경영을 하도록 도울 것이며 한국 시장에서의 친환경과 관련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뿌리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한국에서 환경인증을 받는 기업이 미국, 유럽은 물론 아시아권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과거 한국 기업들이 환경인증을 받는게 다소 느리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컨트롤유니온이 한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역동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강한 한국과 한국인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10년 전 컨트롤유니온이 한국에 처음 진출할 때만해도 한국에서 친환경 인증은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은 빠르게 환경인증을 받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한국시장에 진출한 컨트롤유니온의 결정이 바른 방향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인증을 받는 기업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에 못지 않게 친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제지업계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며,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경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크게 앞선 상황입니다.

## 컨트롤유니온코리아가 인쇄 및 관련업계에 어떤 도움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친환경과 관련된 세미나, 설명회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 및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 섭외 등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것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인협이 추진하고 있는 인쇄물의 해외수출에 있

어서 글로벌 기업인 컨트롤유니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인쇄업계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증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인협 회원사들에 대한 인증료 할인을 비롯하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한국시장의 고객들에게 CUC를 어떤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싶으신지요.

컨트롤유니온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회사로 지난 192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Mr. 피터슨이 회사의 창업주이며 최초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자국 내의 곡물 매매와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했습니다.

1958년부터는 네덜란드를 벗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무역과 운송 사업을 전개했으며 제품의 검열 및 인증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세계 곳곳에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곡물, 과일, 석탄,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제품의 분석실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의 FSC인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4천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품의 분석에서 검열, 관리, 운송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000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8년 2월 독자적인 한국법인으로 설립되어 인증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유니온이 펼치고 있는 인증분야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증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차별성을 갖습니다. 1회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없다면 인증은 박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관련 사업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개인적인 것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태어난 곳과 학업, 지금까지의 직장생활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4월 한국에 가족과 함께 부임했습니다. 그전에는 홍콩의 금융관련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태어난 곳은 네덜란드이며 성장기와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도 유럽입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현재 음악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하는 업무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회사와 저희 팀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